- 강 연 개 요 -

◆ 강연 : 『일본의 산업계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삼성그룹에서 일본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년간 일본에서 근무하며, 삼성에서 재직한 기간 중 3분의 1을 일본에서 보냈음.

- 최근 이창렬 사장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경쟁력'**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이 책에서 일본산업의 강점을 모두 12章에 걸쳐 세세하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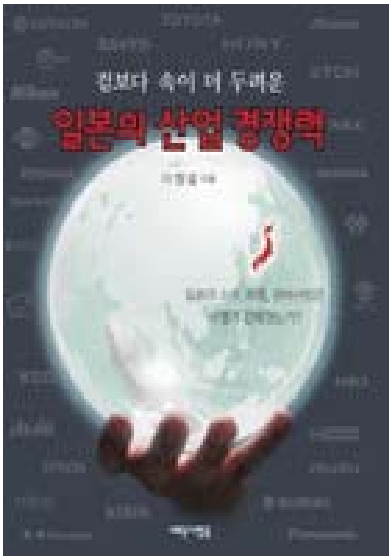
- 이창렬 사장은 동 저서를 통해 일본의 산업과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① 일본 지도층의 리더십과 현장 장인정신의 조화, ② 선각자의 리더십과 인재양성, ③ 사회제도와 시스템, ④ 창조적인 벤치마킹 등의 네 가지 원동력이 있다고 지적.

- 특히, 창조적 벤치마킹에 높은 점수를 주고, "일본의 벤치마킹은 준비가 철저하고 실행과정이 치밀하며 결과를 완벽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라며 "벤치마킹 자체가 일본산업의 DNA처럼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일본의 이런 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이해한 다음 과연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

강사 : 이창렬(李昌烈) 삼성사회봉사단 사장

- 1949년 10월 9일 생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1976년 11월 삼성중공업 입사
- 1985년 12월 삼성중공업 동경지점 근무
- 1991년 1월 삼성Group 회장비서실 근무
- 1998년 1월 삼성전자 전무이사
- 2002년 1월 삼성중공업 부사장
- 2004년 1월 일본삼성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 2010년 1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단장

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경쟁력



저자 **이창렬**

부산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현재 삼성사회봉사단 단장 겸 삼성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197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하여 1977년 일본 IHI 연수, 1985년 삼성중공업 동경지점, 1991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1998년 삼성전자 회장실 전무이사, 2001년 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 부사장, 2002년 삼성중공업 부사장 역임.

1997년 일본 국비 연수생으로 선발되어 IHI(石川島播磨重工業)에서 연수를 받았고, 1985년 삼성중공업 동경지점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 일본삼성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0년까지 근무.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 차

[프롤로그]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1장 삼성의 약진과 일본의 엄살

제2장 조선업과 반도체 산업으로 본 산업사의 흐름과 중심이동
조선 산업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제3장 일본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
선진문물 수용을 위한 마인드 형성
사회제도와 시스템
선각자의 리더십과 인재육성
벤치마킹(△ + α = □ +?)

제4장 140년 전, 이와쿠라 사절단 구미 제국을 순례하다
힘F = 질량m × 가속도a
메이지 정부의 구미 벤치마킹
사절단의 규모와 주요 시찰경로
특명전권대사 미구米歐(歐美) 회람실기回覽實記
이와쿠라 사절단의 시각

제5장 후지필름, 산업보국의 이정표를 세우다
늙지 않는 기술로 늙지 않는 기업
대일본셀룰로이드주식회사의 사명감
후지필름의 사업기반 확립
후지필름의 핵심기술
융·복합 연구개발과 소용지이所用之異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단장

제6장 국가적 사명감과 빈곤 탈출에 대한 열망의 결합으로 일궈낸 TDK
인류에게 달[月]에서의 소리를 전해준 TDK
자성체 페라이트 사업화를 위해 창업하다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의 축적, 재료기술과 프로세스 기술
선각자의 리더십과 동조 인맥의 형성

제7장 일본 전자산업의 뿌리는 군대
군軍에 의해 닦여진 일본 전자산업의 기반기술
전후 일본의 전자산업을 이끈 해군의 기술자들
해군의 조직과 인재육성
육군과학연구소와 전파탐지기 개발
해군기술연구소와 무선통신
육군과 해군의 대규모 독일 시찰단 파견
패전이 일본기업에게는 전화위복

제8장 니콘, 군수용으로 출발하여 민수용으로 꽃피우다
라이프지의 한국전쟁 보도사진으로 유명해진 니콘 카메라
1917년, 광학병기 사업으로 출발하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인 기술자와 육·해군 기술인력 확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
반도체 분야 진출
니콘의 기반기술
일본에서 니콘과 같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

제9장 아날로그 기술로 디지털시대의 강자가 된 HOYA
눈 나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준 기업
군수용 광학 글라스 비즈니스를 민수용으로 전환하다
에도기리코[江戸切子] 장인들과의 만남
광光일렉트로닉스 사업 진출과 성공
기회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제10장 전후의 일본, 미국을 벤치마킹하다
생산성본부와 전기통신기계공업 전문 산업시찰단 파견
전기통신기계공업 전문 시찰단의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
체계적인 벤치마킹과 주요 시찰내용, 그리고 결과 보고서
산업시찰단 파견의 역사성과 의의

제11장 기술기반 마케팅을 지향하는 메이커 형 상사 동경일렉트론
샐러리맨의 불만과 불안이 만들어낸 회사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시작하여 인맥으로 위기를 극복하다
일본판 벤처비즈니스의 성장 비결
수입도 개발투자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
기술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

제12장 삼성이 달려 나가면 일본기업이 웃는 까닭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
잃어버린 10년,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시기
[에필로그] 일본 · 일본경제와 필자에 대해 묻고 답하다 [알라딘 제공]

“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경쟁력” 발간 관련 기사

- 2011. 4. 4 한국경제 경제 ’日 산업경쟁력’ 펴낸 이창열 삼성봉사단 사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0434831

- 2011. 4. 5 머니투데이 경제 ’삼성 일본통’이 전한 “아직 일본서 배워야할 것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0501073970012&outlink=1

- 2011. 4. 5 아시아투데이 경제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장, 日경쟁력 발간”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66783

- 2011. 4. 8 매일경제 사회 “일본산업의 경쟁력은 소재 · 부품 · 장비에서 나온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224152

- 2011. 4. 15 내일신문 사회 “삼성 사장, 일본 산업경쟁력 분석하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00497&sid=E&tid=5

“일본산업의 경쟁력은 소재 · 부품 · 장비에서 나온다.”

(2011. 4. 8 매일경제 사회)

日 이길 해법 제시한 삼성맨 이창렬 사장

“삼성그룹에서 일본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창렬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의 진단이다. 이 사장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년간 일본에서 근무했다. 작년까지 일본삼성 사장으로 재직했던 그는 삼성에서 재직한 기간 중 3분의 1을 일본에서 보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겉보다 속이 더 두려운 일본의 산업경쟁력’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사장은 이 책에서 일본산업의 강점을 모두 12개 장에 걸쳐 세세하게 분석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으며 그 고민의 결과가 한국 산업계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된 네 가지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과학과 서양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약 140년 전 이와쿠라 사절단을 유럽과 미국에 파견해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진 점이다.

아울러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선각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인재 육성에 힘을 쏟은 것이나 선진 문물을 벤치마킹은 하되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체화한 점을 꼽았다.

이 사장은 일본과 1977년 첫 인연을 맺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한 그는 일본 정부 지원프로그램(AOTS)의 도움을 받아 이듬해 일본에서 산업연수를 받게 됐다.

도쿄에 위치한 IHI(옛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 통합연구소에서의 연수 첫 날은 큰 충격이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연료전지(SOFC) 연구에서부터 유조선 탱크 속의 유황성분을 잡아먹는 박테리아 연구까지 그가 접한 모든 것이 미래 기술이었다.

그는 1985년에는 주재원으로 일본과 두 번째 인연을 맺는다. 말이 좋아 주재원이지, 애걸복걸해서 하찮은 상품 몇 가지를 팔거나 고작 주문자상표부착(OEM) 하도급을 따오는 수준이었다.

세 번째 인연은 2004년 일본삼성 사장으로 부임하면서다. **삼성전자**는 2004년 일본의 상위 10개 전자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올렸다. 그러나 이 사장은 답답함을 느꼈다. 삼성전자의 매출을 구성하는 주요 소재 · 부품 · 설비 중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매출은 커졌지만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 후 일본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을 만날 때마다 해당기업의 주력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이어 일본의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을 조사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 세계 반도체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를 비롯한 각종 재료 중 60% 이상을, LCD패널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등 전자재료 중 70% 이상을 아직도 일본기업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노벨화학상 수상자만 7명에 달할 정도로 화학 · 물리분야의 체계적인 기초연구가 바탕이 됐다고 그는 분석한다.

이 사장은 한국기업에도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조선업과 반도체 등 산업사 흐름을 보면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인의 장점인 순발력, 유연성, 창의력,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노력을 곁들이면 우리에게 기회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부활에 대해 물었다.

이 사장은 “일본은 이번 재난을 이겨낼 것이다. 일본이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과 탄탄한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된 여러 요인이 재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